

이 보도자료는 2024. 10. 2.(수) 10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도자료

2024. 10. 2.(수)

전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이영규

전화 063-259-4308

전북경찰청
안보수사과장 이석현
전화 063-280-8090

국군방첩사령부
대외조정과장 허준영
전화 02-731-3930

검찰·경찰·국군방첩사령부의 공조수사 중간 결과 - 급전 대출을 빌미로 군사기밀을 수집한 불법대부조직 및 군간부들의 대출 목적 군사기밀 유출 사건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전주지검 형사3부(부장검사 한연규)는 전북경찰청 안보수사1대, 국군방첩사령부와 공조수사를 통해, 급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군사Ⅲ급 비밀인 「암구호」를 수집한 불법대부 조직의 실체를 밝혀, 9. 30. 그 주범을 구속 기소하는 등, 현재까지 조직원 총 3명을 구속 기소하였음
- 위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자들에게 접근해 최대 연 30,416%의 고이율로 불법 대출을 해주는 한편 군인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암구호 사진 등을 요구하고, 이후 군사비밀 누설을 빌미로 협박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사실이 확인됨
- 위 조직은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취하는 한편, 이를 위해 피해자 중 현역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암구호 등을 수집하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였음
- 전주지검, 전북도경, 국군방첩사령부는 긴밀히 협력하며 위 대부업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임

I 피고인

- A○○(37세, 무등록 불법대부업자, '24. 9. 30. 구속기소)
- B○○(27세, 불법대부업체 직원, '24. 7. 29. 구속기소)
- C○○(32세, 불법대부업체 직원, '24. 9. 3. 구속기소)

II 공소사실 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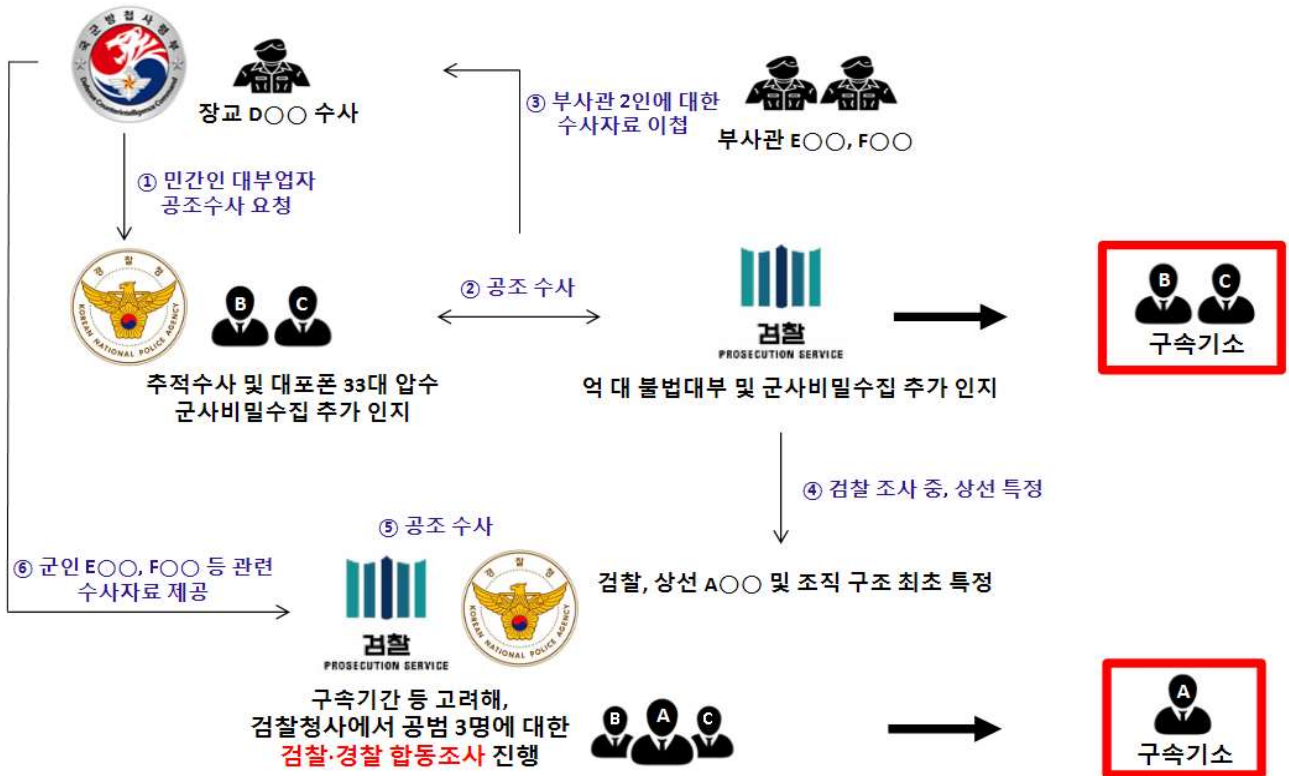
- A○○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직원 B○○, C○○와 공모하여.
 - [군사기밀보호법위반] 군 간부 10명에게 군사Ⅲ급비밀인 암호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총 3명으로부터 합계 7개의 암호호를 수집하는 등 군사기밀 불법 거래(군 간부 7명에 대하여는 군사기밀수집 미수)
 - [대부업법위반] 채무자 41명에게 합계 1억 8,560만 원을 대출해주며 최대 이율 연 30,416%로 하여 1억 원 상당의 초과 이자 수수
 - [채권추심법위반] ① 암호호 누설한 군인에게 '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'고 협박하고, ②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

III 수사경과

- '24. 5. 20. 국군방첩사, 전북도경에 민간인 대부업자에 대한 공조수사 요청
※ 방첩사는 암호호 누설한 D○○(육군 대위)에 대한 수사 진행하였고, D○○는 '24. 6. 11.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,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확정
- '24. 5.~ 전북도경, 통신·계좌영장 등 통해 군사기밀수집 사범 추적·특정
- '24. 7. 4. B○○ 구속 → 7. 29. 구속기소
※ 검·경은 암호호 누설한 군인 2인을 새롭게 특정하여 방첩사에 수사자료 이첩
- '24. 8. 10. C○○ 구속 → 9. 3. 구속기소
- '24. 8. 26. 전주지검, C○○ 조사 중 상선인 A○○ 특정하여 전북도경 통보
- '24. 9. 5. A○○ 구속 → 9. 30. 구속기소

IV

공조수사의 구체적 경과 및 수사 의의



전주지검, 전북경찰청, 국군방첩사령부 유기적 수사협력

- 방첩사는 현역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최초 인지해 수사한 후 군사기밀 수집한 민간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전북도경에 공조수사 요청하였음
- 검찰과 전북도경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군사기밀 수집자를 특정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수사협조하였고, 전북도경은 끈질긴 탐문수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대부업자 B○○, C○○를 체포하여 구속 송치하였음
 - ※ 검·경은 압수한 대포폰 33대의 전자정보 등을 분석해 수 건의 추가 범행을 인지하고, 군사기밀 유출한 부사관 2명에 대한 사건을 방첩사에 이첩하여 현재 방첩사 수사 중
- 검찰은 B○○, C○○ 구속 이후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억 대의 불법대부 범행 등을 추가 인지하고, 계속된 증거제시 및 진술모순 추궁 등 통해 상선(지시·자금책) A○○와 불법대부업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으며,
- 이후 검·경은 전주지검 청사에서 그 조직원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며 대부업 조직 일망타진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, 방첩사는 군 내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며 수사 공조하였음

해이해진 군기강과 결합한 「안보 위협형 서민다중피해범죄」

-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, 코인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진 현역 군 간부들이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안으로, 이들은 **암구호** 등 다수 자료를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,
 - ※ 다만, **암구호** 제공을 요청받은 군 간부 10명 중 7명은 그 제공을 거절하였음
- 불법대부업자인 피고인들은 이자 수령 및 채권 추심 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수집·보관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최대 이율 연 30,416%에 이르는 **막대한 이자 수익을 취하는 등 서민경제를 어지럽혔음**
 - ※ 피고인들은 수집한 **암구호** 등을 **채권추심 협박용으로** 사용하였으나, 현재까지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반국가단체 등에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음
- 검찰은 이 사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공범 및 추가 범행의 정황을 확인하고, 전북도경 및 국군방첩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**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음**

영리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하는 신종유형의 범죄

- 이 사건은 불법 대부를 위해 군사기밀자료를 불법 거래한 신종 유형의 범죄로, 관련자들이 유출·수집한 **암구호**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반국가단체 또는 외국에 전파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
 - 현직 군 간부들과 사병으로 만기 전역하여 군 경험이 있는 대부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본건 범행에 나아간바, 군 기강 확립 및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정립과 교육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

V

향후 계획

- 검찰, 경찰, 국군방첩사령부는 끈질긴 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, 검찰청사에서 수사회의 및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범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해왔음

- 앞으로도 검·경·군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다변화하는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 관련 사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